

‘5안타·4득점·2도루’ 박재현 “내가 제일 잘 나가”



17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6타수 5안타 맹타를 터뜨린 박재현과 11경기 만에 손맛을 본 김도영이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삼성전 16대7 대승 ‘워닝 시리즈’

장단 19안타 폭발 ‘선발 전원 안타’ 사자 마운드 초토화 김도영, 11경기 만에 시즌 13호포 홈런 단독 선두 질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화끈한 타선의 힘으로 주말 워닝시리즈를 완성했다.

KIA는 17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6-7로 크게 이겼다. 전날 패배를 실욕한 KIA는 단독 5위를 유지했다.

타선이 폭발했다. 장단 19안타. 선발 전원 안타가 터졌다.

리드오프 박재현의 존재감이 가장 선명했다. 6타수 5안타 2타점 4득점. 여기에 도루 2개까지 더해지며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다. 김도영도 11경기 만에 시즌 13호 홈런을 터뜨리며 이 부문 단독 선두를 이어갔다.

마운드는 다소 흔들렸다. 선발 김태형은 42이닝 2피안타 4사구 2탈삼진 5실점(무자책)을 기록했다. 불펜에선 김병

수와 홍민규가 1실점했고, 조상우와 한재승은 무실점으로 막았다.

7-4로 앞선 5회말 마운드에 오른 조상우가 승리투수가 됐다.

출발부터 KIA 분위기가 좋았다.

1회 2사 만루에서 김도영과 김규성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며 3-0으로 앞서갔다.

2회에는 김도영의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점수 차를 벌였다.

3회 1실점했지만 흐름은 이어졌다. 4회 박상준의 적시타와 김도영의 희생플라이로 7-1까지 달아났다.

5회는 다소 흔들렸다. 볼넷 4개가 한 이닝에 쏟아졌다.

유격수 팽볼 실책과 안타, 볼넷이 겹치며 1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내준 뒤 삼진으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다시 연속 밀어내기 볼넷과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순식간에 7-6까지 쫓겼다.

하지만 KIA 타선은 곧바로 응수했다.

6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무사 2루에서 박재현의 적시타가 터졌고, 이어진 1사 1-3루에서는 상대 폭투와 아데를린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했다. 계속된 기회에서 나성범의 적시타, 김도영의 희생플라이까지 나오며 점수를 12-6까지 벌렸다.

득점은 계속됐다.

7회에는 박재현의 내야 안타 때 2루 주자 박민이 홈까지 파고들었다. 8회에도 김규성의 팽볼 때 김선빈이 득점했다. 9회엔 한준수의 투런 안타까지 나왔다.

9회 무사 만루에서 1점을 내줬으나 승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홍민규가 3개의 아웃카운트를 정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앞선 15일에는 9회 박재현의 역전 투런 홈런으로 5-4 승리를 거뒀다.

16일에는 4안타에 묶이며 2-5로 패했지만, 마지막 날 승리를 챙기며 워닝시리즈로 마쳤다. /주홍철 기자

광주체육중 구시온·박예성, 광주선수단 첫 금



전국소년체전 사전경기 조정 더블스킬 ‘금합작’...정희성 ‘銀’, 강지현·오로라 ‘銅’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선수단이 사전경기로 열린 조정에서 첫 금메달을 신고했다. ‘광주 조정 꿈나무’ 구시온·박예성(광주체육중 3)은 17일 부산 서낙동강 경기장에서 열린 조정 남자15세이하부 더블스킬에서 뛰어난 팀워크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3분20초92의 기록으로 광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어 정희성(광주체육중 3)이 남자 15세이하부 싱글스킬에서 은메달, 강지현(광주체육중 3)·오로라(광주체육중 2)가 여자15세이하부 더블스킬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광주선수단은 이날 조정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금빛 순항’을 시작했다.

구시온·박예성은 경기 후 “훈련했던 만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금메달을 따서 기쁘다”며 “함께 땀 흘린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 선생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체육중과 광주체육고, 광주시체육회와 목송그룹 조정선수단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연계육성 시스템을 구축한 광주 조정은 광주체육의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특히, 목송그룹(회장 이명식)은 지역 우수선



17일 소년체전 사전경기가 열린 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을 찾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광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구시온·박예성을 시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수의 외부 유출을 막고 조정 종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체육고 출신 국가대표 김지선(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등 4명을 영입해 팀을 창단하며 지역 체육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직접 경기장을 찾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남자15세이하부 수상자들을 시상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금메달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과 지도자, 협회, 기업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광주 조정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체육의 미래인 유소년 체육 발전을 위해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 SOOP, 시페퍼스 인수

“연고지 광주” 청신호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인 SOOP(술·애 아프리카TV)이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 구단을 인수한다.

SOOP 관계자는 지난 15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SOOP이 AI페퍼스 인수 과정을 마무리하면 프로배구 여자부는 7개 구단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OVO는 AI페퍼스를 포함한 각 구단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이르면 이번 주 임시 이사회를 열어 SOOP의 KOVO 회원 가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KOVO와 SOOP은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입비 및 배구 발전기금 납부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구계 관계자는 “당초 KOVO는 신생팀 기준의 가입비(약 20억원)를 요구했고 SOOP은 난색을 보여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양측은 총액 조율 과정을 거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KOVO 관계자는 “가입비 부분과 관련해 다른 구단들의 입장이 모인 상태”라며 “이사회에서 다른 구단들이 의견을 모아



광주 페퍼스타디움 전경

야가입 절차가 정리된다”고 밝혔다.

SOOP은 이사회를 통해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기존 AI페퍼스 선수들을 승계하고 새 구단 조직을 꾸릴 예정이다.

연고지는 광주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배구계 관계자는 “SOOP이 당장 새로운 연고지를 구해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SOOP도 광주 전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I페퍼스와 광주시의 연고지 협약은 지난 12일 만료됐으나 SOOP은 회원 가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광주시와 연고지 협약 연장과 관련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수원 도착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수원시 한 호텔에서 도착하고 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FC 위민과 결승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전남, 역대 최다 메달 ‘쾌거’

제20회 장애학생체전...이승훈·황다연·김하진·국사랑 ‘3관왕’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한 전남선수단이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전남선수단은 지난 15일 부산 일원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35개 등 총 8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83개의 메달은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2024년 제18회 대회(금16, 은35, 동38 총 74개)보다 9개가 많은 성적이다.

11개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보인 가운데 역도와 육상 종목에서 다관왕이 쏟아졌다.

역도에 출전한 이승훈(강진덕수학교)은 남자 +100kg급 지적 고등부 스쿼트(176kg)와 데드리프트(196kg)에서 각각 1위에 오른 뒤, 합계 372kg으로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3관왕에 등극했다.

육상에서는 황다연(함평영화학교)이 여자 800m, 1500m, 400m 릴레이 T20 고등부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3관왕, 국사랑(영암소림학교)이 여자 800m, 400m 릴레이, 1500m T20 중등부 3관왕에 등극했다.

이밖에 육상 강유림(강진덕수학교), 육상 노연화·윤하민(영암은광학교), 수영 정우찬(여수양지초)도 각각 2관왕을 차지하며 전남 장애 학생 체육의 미래를 밝혔다.

보치아 종목에서는 강재은(무안몽탄중)이 보호자 이주희씨와 함께 3년 연속 대회에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솔린과 e스포츠는 종목 종합 2위를 기록하며 전남 선전에 힘을 보탤다.

광주선수단은 3관왕 1명과 2관왕 2명을 배출하며 금메달 13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6개를 획득했다. /박희중 기자



역도 3관왕 이승훈 수영 3관왕 김하진

수영에 출전한 김하진(광산중 3)은 여자 자유형 100m, 200m 금메달, 혼성계영 200m 동메달에 이어 대회 마지막날 점영 50m S14 중등부에서 또 하나의 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3관왕으로 광주선수단 최다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에서는 강남준(대촌중앙초 5)과 박하울(봉주초 6)이 남자 500m 타임레이스(단체전) PR3-ID 초등부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혼성 500m 타임레이스(단체전) PR3-ID 초등부에서 금메달을 보낸 강남준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지난대회 육상 여자 200m, 400m T20 고등부에서 우승한 이가는(광주선명학교 3)은 이번 대회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차지하며 2년 연속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역도에 출전한 신정아(선예학교 2)는 여자 -60kg급 지적 고등부 스쿼트에서 67kg을 들어올리며 학생신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 종목 종합 3위였던 조정은 이번 대회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목 종합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박희중 기자